

광주·전남 육아휴직자 5529명... '워킹대디' 30% 육박

2018년 3833명서 5529명으로 늘어... 5년 새 44.25% 증가 지난해 남성 1543명... '3+3 부모육아휴직제' 등 제도 개선 영향

직장인 김모(41)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 달 복직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딸을 돌보기 위해 10개월간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했다.

김씨는 "아이들이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 휴직을 택했다"며 "부인은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탓에 내가 휴직을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회사에 눈치가 보여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지만 최근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며 "덕분에 휴직 기간 딸 아이와 추억을 쌓을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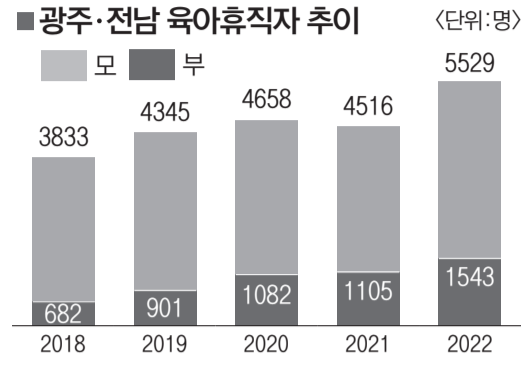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총 5529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1543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행정통계 시스템 '모성보호지급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육아휴직 초회수급자는 총 5529명으로, 전년(4516명)보다 22.43%(1013명) 늘었다.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를 보면 2018년 3833명, 2019년 4345명, 2020년 4658명, 2021년 4516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44.25%가 늘어난 셈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2021년에는 육아휴직자가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대면 활동이 다시 재개되자 증가 폭이 커졌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876명, 2071명, 2116명, 2003명, 2486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같은 기간 1957명, 2274명, 2542명, 2513명, 3043명이었으며, 또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광주·전남이

1543명으로 전년(1105명) 대비 39.6%(438명)이 나 증가한 것은 물론, 전체 육아휴직자의 27.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682명으로 전체의 17.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5년 전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2.2배(126.2%)나 증가했다.

광주·전남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증가한 것은 작년 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로 인상됐다.

이처럼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기면서 육아휴직에 나서는 아빠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5년 간 252명, 339명, 408명, 407명, 590명으로, 전남은 같은 기간 430명, 562명, 674명, 698명, 953명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광주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10~29인 기업이 385명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기업이 301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1000명 이상 기업이 82명, 500~999인 기업이 75명 순으로 많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 휴직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여성 휴직자는 10~29인 기업이 3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1000명 이상이 22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우리 농산물로 감사 표현하세요" 농협 강진군지부 직원 등 20여 명은 최근 강진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서구선관위, 서창농협서 '조합장 선거 교육'

위반사례 중심 구성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서창농협을 찾아 대의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구선관위는 오는 3월8일 치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대비해 오는 2월16일까지 서구지역 3개 농협과 산림조합에서 위탁선거법 교육을 벌인다.

이 기간 조합장 출마 예정자와 조합원 등 총

200여 명이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기부행위 제한·금지 및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법 규정 및 실제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서구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부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도, 중기·소상공인 4500억원 금융지원

최대 중기 5억·소상공인 2억원

전남도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4500억원으로 분야별 지원 금액은 운영자금 3800억원과 시설자금 700억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전남도가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과 도내 소재 소상공인이다.

운영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차료나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로, 시설자금은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으로 대출하면 전남도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상환 방식에 따라 2년 거치 일시 상환은 2.0~2.5%,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은 1.1~1.4%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전남도가 조성한 자체 기금을 통해 최대 8년 동안 5억원에서 20억원까지 저리로 시중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은 2.5%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밖의 기업은 3.3%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 무안 특산물 구입 지역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은 26일 무안군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50만원 상당 특산품을 구매해 무안군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전달은 전남지역협력단 임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 조성한 '물사랑나눔펀드'로 마련됐다.

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이 구매한 무안지역 특산품을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등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창민 전남지역협력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 지난해 항만 물동량 2.3% 감소

광양항 7.8% 감소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15억4585만t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13억472만t으로 집계됐다.

연안 물동량은 유류 등 수입 원자재의 국내항 운송이 늘며 전년 대비 4.7% 증가한 2억4113만t을 기록했다.

항만별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이 전년 대비 각각 4.0%, 7.8%, 5.0% 감소하는 등 대다수 항만 물동량이 줄어들었다. 다만 울산항은 5.5%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2881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집계됐다.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1644만TEU로 집계됐다. 중국(-3.7%), 일

본(-3.0%), 러시아(-25.3%) 등 주요 국가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한 영향이다.

항적은 1215만TEU를 기록해 전년 대비 4.2% 줄었다.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면 부산항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2207만TEU를 기록했다.

인천항은 319만TEU, 광양항은 186만TEU를 처리했다. 각각 전년 대비 4.9%, 12.3% 감소했다.

지난해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10억4265만t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했다.

광양항(-6.8%), 인천항(-5.7%) 등은 감소했으나 평택·당진항(0.5%), 울산항(6.1%), 대산항(2.3%) 등은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처리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4억6728만t을 기록했다. 원유·석유가스 수입과 석유정제품 수출 물동량이 소폭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광석은 철강제품 수요 둔화, 제철소 태풍 피해 등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한 1억2794만t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